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4년6개월만에 정상 가동

### 난방공 '사업신고 수리거부' 승소 발전소 가동 절차적 정당성 확보 지역민 집단시위 예정...진통 예상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29일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017년 9월 시험가동을 시작한지 4년6개월 만이다.

정상가동에 맞춰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발전소 가동의 불가피성과 지역 상생 의지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난방공사는 이날 오전부터 SRF 열병합발전시설도 가동에 들어가 나주 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을 공급하게 된다. 이날부터 하루 300여의 SRF를 반입, 처리하고 있다.

이번 정상가동은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월10일 승소하면서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발전소는 지난 2020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2020년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 재량권을 한탄에 준다"는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29일부터 발전소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메인 발전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 전용의 보조발전시설인 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 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5년 가까이 정상 가동을 못해왔다.

SRF는 각종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와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를 말한다. SRF 발전시설이 오랜 기간 가동을 못하면서 난방공사



29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SRF 열병합발전소가 시험가동 4년6개월만에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는 값비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침두부하보일러를 가동해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 등지에 난방을 공급하면서 연간 2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다.

황창화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건"이라며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년간 시위 등 가동에 강력히 반발해왔던 지역민과 시민단체 등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등도 30일부터 집단 시위에 나서기로 하면서 가동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중대사고 낸 건설사 처분 권한, 지자체서 국토부 이관

###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있는 중대사고 책임 시정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토교통부로 환원된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사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사고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사고로 제한된다.

조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건설사고조사위는 건설 사고로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

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꾸러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처분은 국토부가 직접 내리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숨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형사판결 결과가 나와 위법성이 확인될 때까지 처분을 미루고 민원과 소송 등을 우려해 처분에도 신중한 경향을 보인다.

국토부가 전날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으나 처분정인 서울시는 신중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소송 등에 대비해 법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사고 업체를 처분해 처분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내 여행객 무격리 입국 가능 국가 39개국...아동은 35개국

### 하나투어, 각국 방역 조치 분석

하나투어는 "국내 여행객이 무격리로 입국 가능한 국가는 총 39개국이며, 이 중 아동이 무격리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35개국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하나투어는 외교부 및 각국 대사관, 관광청을 통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이 19개국으로 가장 많다. 다음달부터는 말레이시아 입국 시에도 격리가 면제될 예정이다.

무격리 입국 39개국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26개국으로, 이 중 유럽이 19개국이다.

베트남·두바이 등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무격리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에 따라 입국 시 출발 1~2일 전에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나 항원검사서

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이판, 괌, 싱가포르, 호주 등 35개국은 동반하는 부모가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부분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PCR 검사 및 백신접종 증명서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국 시에는 만 6세 미만까지만 격리가 면제된다. 하나투어는 무격리 입국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달 17일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 코로나 먹는치료제 처방 확대로 중증화율 완화

### 전남도 '라게브리오' 9명 첫 투약 팍스로비드 보완재 역할 특목

코로나19 새 세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팍스로비드 보완재 역할을 함으로써 먹는약 처방 확대에 따른 중증화율 완화가 기대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약국, 병원 등 98개소에 라게브리오 1210명분이 배정된 가운데 29일 현재까지 담양·해남 등 2곳의 담당 약국에서 총 9명에게 투약됐다. 또 팍스로비드는 107개소에 총 8644명분이 배정돼 이날까지 6361명에게 처방됐다.

라게브리오의 첫 투약 대상자는 지난 26일 가래, 열 등 증상이 발현된 담양의 60대 남성이다. 관리의료기관 의사는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조회해 투약 중인 병용 금기 의약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먹는 치료제 투약을 결정했다. 이 환자는 28일 먹는 치료제 투약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중 기존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투약에 제한을 받았던 일부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해 보완재 역할을 특목히 하고 있다.

앞서 도입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간·신장 질환이 심한 경우 복용이 불가하고, 통증 및 협심증 치료제 등 28가지 의약품을 함께 쓸 수 없어 제한사항이 많았다. 라게브리오 도입으로 먹는 치료제 대상 범위가 넓어져 입원을 및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고령자가 집중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라게브리오를 활용하면 고령층 중증화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약국과 병원 등을 통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치료제 처방 시 복약 지도를 통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당일처리. 010-3605-5000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상가건물 대량보유 부동산매매

<b>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b>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b>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b>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b>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b>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b>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b> 약 7,400㎡, 전체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b>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b>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b>해남읍 사찰, 임야</b> 전 36,000㎡ 건물6동 납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b>두암동 대지</b>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b>동구 지산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b>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계림고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철도로 근접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라프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9억원
- 2 /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읍 경계 신철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층)**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십만원
- 4 /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중수 010-3454-2389

**대영공인중개사**